

제 2008 호 | 2020년 9월 13일

새소망교회

2020년 표어: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집권목사: 안인지
부목사: 안지영
주목사: 안지영
공동목사: 송진영
공동목사: 오진민



에배영광
기도솔피
말씀순종
복음중거



newhope church

6301 Stevens Forest Rd. Columbia, MD 21046 | Phone: 443.353.9191 | www.newhope.us

예 배 순 서

제 2008 호

9월 13일 2020년

집례 : 안인권 목사 (1부, 2부)
Rev. Joe Ahn (3부)

- | | | |
|-------------------------------------|---|--|
| * 찬 송 -----
Precessional Hymn | 고개들어 ----- | ----- 다같이
Congregation |
| * 신앙고백 -----
Confession of Faith | 사도신경 ----- | ----- 다같이
Congregation |
| 기 도 -----
Prayer | 합심기도 ----- | ----- 다같이
Congregation |
| * 봉 헌 -----
Offering | ----- 다같이
Congregation | |
| 봉헌기도 -----
Offering Prayer | ----- 집례자
President | |
| 성 경 -----
Scripture | 1부, 2부: 고후 6:11-13
3부: Revelation 2:1-7 | ----- 집례자
President |
| 설 교 -----
Sermon | 1부, 2부: 좁은 그릇, 넓은 그릇
3부: Back to the Future II | ----- 안인권 목사 (1부, 2부)
Rev. Joe Ahn (3부) |
| 광 고 -----
Announcement | ----- 집례자
President | |
| * 찬 송 -----
Hymn | 나의 등 뒤에서 ----- | ----- 다같이
Congregation |
| * 축 도 -----
Benediction | ----- 안인권 목사 (1부, 2부)
Rev. Joe Ahn (3부) |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예배성공 · 기도승리 · 말씀순중 · 복음증거

목표 : ① 천배 부흥과 복의 통로가 되자
② 기도자 7000명
③ 전도자 2000명

실천사항 :

- ⓪ 매일증거
- ⓪ 매일기도
- ⓪ 매일순중
- ① 응답(기도)의 통로
- ② 기쁨(성령)의 통로
- ③ 영광(감사)의 통로
- ④ 축복(순중)의 통로
- ⑤ 생명(희생)의 통로

4대 명령 : 예배성공, 기도승리, 말씀순중, 복음증거
3대 사랑 : 하나님사랑, 영혼사랑, 교회사랑
3대 기준 : 하나님영광, 교회유익, 성도축복
3대 의무 : 전도, 봉사, 교육
3대 축복 : 주일, 주의 것, 주의 중

새소망 성도의 확신 : 구원의 확신, 축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새소망 성도의 자세 : 긍정적, 적극적, 도전적
새소망 성도의 정신 : 포용력, 결단력, 인내력

지난주 설교 요약

시험과 믿음 (고후 13:5)

시험 대상 - 시험을 말하면 피동적인 시각으로 자신보다 타인을 판단하는 문제로 생각하기 쉽다. 오늘 본문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고 한다. 남에게 대한 시험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시험이다. 남을 시험하는 경우와 나를 시험하는 경우. 남을 시험하는 사람일수록 믿음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예수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나를 시험하는 사람일수록 믿음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믿음이 있고 그 심령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시험이라는 십자가를 남에게 짐 지우지 않는다. 자기가 짊어진다.

자기 시험 목적 - 교인 간 소송과 분쟁으로 남을 향한 비판과 정죄로 영적 혼란이 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다. 남을 비판하기 쉬운 것이 죄인의 특징이다. 남에 대한 비판은 자신을 위해서는 백해무익할 뿐이다. 자신의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면 버려진 자다. 가장 먼저 확인 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인생의 생사 회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예수요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며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으며 구원이야말로 인생의 근본적 해결이다.

시험 발생의 원인 - 시험의 발생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사람과 사람관계에서 시험이 발생한다. 어떤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 아닌 아는 사람이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이며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다. 시험 주는 사람이 있고 시험 받는 사람이 있게 된다. 시험이 필연적인 것처럼 시험을 주고받는 인간 관계도 필연적인 관계를 통해 발생하게 된다. 시험 주는 입장은 자신에게 유익보다 손해와 용서보다 정죄의 입장에 있게 된다. 시험 받는 입장은 억울할 수록 유익하고 복이 된다.

시험의 목표적 대전제 - 시험의 대전제가 되는 목표가 있다. 잘잘못을 불문하고 타당과 부당을 불문하고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손익을 불문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에 관계없이 지면 패배자이다. 시험에서의 패배는 모든 것에서의 패배이다. 무엇보다 시험에서의 패배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영적 싸움이나 육적 싸움이나 모든 싸움에서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험 -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행하시는 일이 있다.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다. 두 가지의 시험의 방법과 수단이 있다. 사람과 물질이다. 예전에서부터 물질(선악과)과 하와(사람)가 시험에 쓰임 받았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과 롯, 에서와 야곱, 요셉과 형들, 사울 왕과 다윗, 사르밧 과부의 가루 한 움큼,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십일조를 통한 하나님 시험까지 인간이 존재적으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관계를 통해 피할 수 없는 시험과 연단을 하신다.

사단의 시험 - 사단 역시 사람과 물질 통해 시험하여 함정에 빠뜨린다. 그 함정에 빠진 케이스가 성경에 많이 등장한다. 첫번째가 아담과 하와이며 그 결과는 그들 자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류 전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성경에는 시험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족보와 시험을 승리한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사단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넘어뜨린다. 밤낮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 사단의 시험의 대표적인 것이 욕에 대한 시험이다. 욕이 시험을 이기는 자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시험의 필수성 - ①공력 확인: 고전 3:10-15에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지어진 두 가지 집에 대한 시험을 통해 불에 타는 집과 불에 타지 않는 집을 구별한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사람의 기준에 의한 경우를 구분하여 상벌이 결정된다. ②믿음 강화: 벧전 1:5-7에서 연단 받은 믿음만이 종말의 환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마지막 대환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없이는 견딜 사람이 없다. 믿음의 시련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이유가 그 때문이다.

시험의 필수성 - ③축복의 확정: 창 22:1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종 시험한다. 당초부르신 순간 약속하신 열방을 향한 구원과 축복의 비전을 확정하기 위해 마지막 시험을 한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다. 이 시험을 통과한 순간 하나님은 맹세하고 보증하며 축복의 확정을 확인하신다. ④구원의 확인: 고후 13:5에서 자신을 시험하여 믿음이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가 구원이 확실한가 확인하고 확정하라고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 구원에 있다. 인생의 최대 속제는 구원의 문제다. 구원 없는 인생은 완전 실패한 인생이다.

교회 소식

- ◎ 한민족의 뿌리교육이 되는 한글학교 등록 마감시간이 임박했사오니 신속한 등록을 당부드립니다. (한글학교 새학기 등록 문의: 우문주 전도사)
- ◎ 국가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중보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 사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신속한 백신개발과 코로나 소멸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새소망 성경대학 1차(8월 5일-10월 7일): 매주 수요일 7:30pm (장소: 본당)
- ◎ 예배당 입장, 퇴장 순서: 입장 때는 앞줄 좌석부터, 가운데 좌석부터 착석해 주시고, 예배 후에는 뒷줄부터 간격을 유지하여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방역 위한 주의사항: 마스크 착용, 손씻기, 간격유지
- ◎ 예배후 귀가시 이웃 차량을 위해 먼저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월 청소: 믿음구역, 감사구역
2. 토요일(이번주) 중보기도 담당: 능력①구역

<9월 행사>

1. 새소망 성경대학 1차: 8월 5일-10월 7일 매주 수요일 7:30pm (장소: 본당)
2. 주일학교 학부모 PTA 온라인 모임: 9월 13일(주일) 오후 7시 Zoom Meeting
3. 한글학교 새학기 개강: 9월 19일(토) 오전 10시-오후 1시 (문의: 우문주 전도사)

<새소망교회 Youtube Channel>

- ◎ Youtube에서 "New Hope Church TV" 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 온라인 예배: www.newhope.us/online 에서 예배가 실시간 방송됩니다.
매일 새벽예배(5:30AM), 금요일예배(8:00PM), 주일예배(10:30AM, 1:30PM)

<담임목사님 소개영상>

- ◎ Youtube에서 "C채널 방송 안인권목사" 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노방전도 일정표

<input type="checkbox"/> 엘리콧시티 롯데	<input type="checkbox"/> 엘리콧시티 한아름	<input type="checkbox"/> 엘리콧시티 뚜레쥬르	<input type="checkbox"/> 케이튼스빌 한아름
첫째주: 믿음 ① 구역 믿음 ② 구역	첫째주: 충성 ① 구역 충성 ② 구역	첫째주: 사랑 ① 구역 사랑 ② 구역	첫째주: 은혜 ① 구역 은혜 ② 구역
셋째주: 감사 ① 구역 기쁨구역	셋째주: 능력 ① 구역 능력 ② 구역	셋째주: 승리 ① 구역 승리 ② 구역	셋째주: 화평 ① 구역 화평 ② 구역

이번주 구역 예배 장소

기쁨 구역: *성경대학	
믿음 ① 구역: *성경대학	감사 ① 구역: *성경대학
믿음 ② 구역: *성경대학	감사 ② 구역: *성경대학
은혜 ① 구역: *성경대학	화평 ① 구역: *성경대학
은혜 ② 구역: *성경대학	화평 ② 구역: *성경대학
사랑 ① 구역: *성경대학	충성 ① 구역: *성경대학
사랑 ② 구역: *성경대학	충성 ② 구역: *성경대학
능력 ① 구역: *성경대학	승리 ① 구역: *성경대학
능력 ② 구역: *성경대학	승리 ② 구역: *성경대학

예배와 모임 시간

주일 예배

- | | | |
|------------------|--|---|
| 1부: 오전 8:00 | <input type="checkbox"/> 새벽예배: 오전 5:30 | <input type="checkbox"/> 청년부예배: 오후 6:00 (토) |
| 2부: 오전 10:30 | <input type="checkbox"/> 금요찬양: 오후 8:00 |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예배: 오후 1:30 (토) |
| 3부: 오후 1:30 (영어) | <input type="checkbox"/> 구역예배: 오후 7:30 | <input type="checkbox"/> 주일 학교: 오전 10:30 (주일) |

목회 칼럼

구원의 길은 왜 좁고 협착한가? ②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복음적 구원 잔치에는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모여 들어야 한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다.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눅 14:18)”. 물론 이들은 이방인에 앞서 먼저 ‘구원예의 초대’를 받은 유대인들을 상정하지만, 복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 반응이기도 하다.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다고 무조건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댓가’를 요구 받는다고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람들이 구원예의 초대를 ‘수납’ 혹은 ‘거부’하는 것이 순전히 인간 성향, 의지의 문제만이 아닌 다른 근원적 요소, 곧 하나님의 택정과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 곧, 하나님이 눈을 열어 준 자들은 복음에 환호하게 되고, 눈을 감기게 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고전 1:18).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눅 13:24)”는 말씀 역시 신중한 해석을 요한다. 흔히 이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구원이 어려우면 그렇게 들어가길 원하는데도 못 들어갈까’라는 선입견을 갖기 쉬운데, 이는 ‘인간이 아무리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못 얻는다’는 뜻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을 받으라(계 22:17)”고 하신 말씀이 부정돼야 한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않으신다. 이는 잘못된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에 대한 경계이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믿음’이며, 이 ‘예수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들을 “절도며 강도(요 10:1)”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대표적인 이들이 ‘믿음의 의(義)’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그 결과 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스라엘(렘 10:3)이다. ‘구원의 문’을 ‘좁은 문(마 7:13)’이라 했음도,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보통 실력으로는 안 되듯, 구원도 출중한 실력을 갖춰야만 얻는다는 뜻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세상의 무능한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구원하여 세상의 지혜 있는 자, 능력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전 1:26-29)”는 성경의 가르침이 부정돼야 한다.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 받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들이야말로 은혜가 아니면 안될 죄인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좁은 문’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또 ‘구원의 길이 협착하다(마 7:14)’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구원을 받으려면 ‘은갓 율법적 의행(義行)’과 ‘엄청난 수고’가 따라야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빌 2:10)는 뜻이다. 무릎 꿇는 것을 왜 그토록 어렵다고 하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무릎 꿇는 행위는 주권 포기를 말한다. 빌2:6-7에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하는 이유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결론적인 말씀이 있다.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고 하셨다. 낙타가 들어가는 바늘 구멍은 성문이 닫힌 후에 들어가는 비상문을 말한다. 그 문은 낙타 등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주권이 바뀌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이외에는 다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배설물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다 버리게 된다.

율법이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갈 3:12)”고 하니, 죽지 않기 위해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야말로 고행 그 자체인 것이 ‘율법적 의’의 중 노릇하던 삶에서 속전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으로 영접한 결과는 죄와 마귀의 중 된 데서 해방되고, ‘자기 신뢰’와 ‘율법적 의’를 배설물로 여기고(빌 3:6-8) 예수 앞에 철저히 ‘항복하여 그의 종’이 되는 것이다. ‘구원의 길이 협착 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이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마 19:26)”는 주님의 말씀이 그 해결책인 것이다.

좁고 협착한 그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길이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 구원이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은혜인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이 세상적 시각, 율법적 시각으로는 분명히 좁은 길, 협착한 길이 틀림없지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길은 결코 좁은 길 협착한 길이 아니라 넓은 길, 평탄한 길, 쉬운 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이요 기쁜 소식 임에 불구하고 괴롭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자기의 방법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영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육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고집하기 때문에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가고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로 가고 있다.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은 끝까지 고통의 길, 불행의 길이다. 하나님의 방법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이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육적 시각에서 영적 시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신 것처럼 죄인의 영적 눈과 귀를 열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